

초·중 학부모 10명 중 9명 “이과 희망”

절반이 의학계열...공학 40.2% 문·이과 인재 불균형 심화 우려 우수 문과 학생 위한 정책 절실

초·중학생 학부모 10명 가운데 9명은 자녀가 의학계열이나 이공계열 등 '이과' 진로를 택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문·이과 인재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날 16~17일 초등학생 학부모 676명과 중학생 학부모 719명 등 139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녀의 진로에 대해 88.2%가 이과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초등학생 학부모는 92.3%, 중학생 학부모는 84.4%가 이과를 희망했다.

이과 희망 학부모가 선호하는 전공은 의학계열(의·치·약대)이 49.7%로 1위였고, 공학계열이 40.2%였다.

순수 자연계열 진학을 원한다는 비율은 10.1%에 불과했다.

특히 초등학생 학부모의 의학계열 선호도는 52.3%로 중학생 학부모(47.0%)보다 높았다.

향후 의학계열 선호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은 55.0%였고, 인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이들은 9.8%뿐이었다.

이에 비해 한때 인기가 높았던 사범대는 선호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이들(78.3%)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교원 수급정책, 학령인구수 감소에 따른 교사에 대한 직업의식 바뀌는 양상을 반영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경찰대 역시 선호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이 각 30%대로 선호도 상승을 점친 비율(각 10%대)보다 높았다.

이과일 경우 선호 대학은 지방권까지 포함한 의대(44.0%)가 서울대이공계(20.5%)와 카이스트(18.8%) 등을 앞질렀다.

문과에서는 제일 선호하는 전공이 방송·언론 등 미디어전공(35.2%)이었고, 상경계열(26.5%)과 사회과학계열(19.1%)이 뒤를 이었다. 이는 방송, 언론 매체수가 많아지고, 유튜브 방송 등이 활발해진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보다는 의대 관련 선호도 집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구도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과생 비율이 처음 40%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초·중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이과 선호 현상이 더 강하다”며 “문·이과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문과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학교 대화합 체육대회’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학교 대운동장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총학생회가 주최한 ‘2023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광주대 제공>

‘놀고 쉬며 일하자’...동신대, ‘디지털 노마드 in 나주’ 성료

우수인재 유치·지역경제 기여

동신대학교 에너지리서처에서 최근 진행된 ‘2023 디지털 노마드 in 나주’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

동신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과 혁신융합 캠퍼스사업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2023 디지털 노마드 in 나주’는 지난 18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내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 2층에서 열린 ‘제3회 Next 전남, 나주상상포럼’을 끝으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역 주민과 나주시 공무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등 126명이 참여한 이날 포럼에는 김혁 전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초청 특강자로 나서 ‘테마파크, 나주를 먹여 살릴 즐거운 장치’를 주제로 강연했다.

‘디지털 노마드’란 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의 합성어로, 나주에서 놀고 쉬며 일하는 취지로 ‘디지털 노마드 in 나주’를 추진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20명이 지난 10일부터 나주와 광주, 목포 일원에서 숙박, 관광, 먹거리, 문화 체험을 무료로 즐기며 에너지 프로슈머의 가치와 미래를 경험하고 창업 지원 기회를 얻었다.

또 한국전력과 한전KDN 등 혁신도시 에너지 공기업과 동신대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이자전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최신 기술을 체험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수도 나주의 에너지 관광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프

로슈머, RE-100 에너지 프로슈머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라이프 스타일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디지털 노마드 우수인재를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에너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기업 발굴과 육성 등 지역과 상생·발전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시교육청,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 우대

‘공직사회 실질적 변화’ 목표 수립...4개 분야 16개 과제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우수공무원을 인사에서 우대하는 등 공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혁신적 포용교육 실현’을 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소극행정 예방·해결, 4개 분야를 중심으로 16개 적극행정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올해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선정 건수를 확대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청에서 실시하던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동·

서부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했다. 적극행정 홍보 브로슈어 및 물품 등을 제작·배포해 적극행정 관련 교육과 홍보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적극행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국민을 웃게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국민투표 점수를 반영해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해 2023년 국민체감형 적극행정 중점과제 2건을 선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학생들 국제적 역량 강화한다

호주 학교와 화상 수업...2025년까지 30개교로 확대

전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 호주지역 학교 등과 진행하고 있는 화상교육을 확대한다.

전남도교육청은 호주뉴잉글랜드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 화상수업 대상 학교를 오는 2025년까지 30개교로 늘려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호주뉴잉글랜드대학교와 화상수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17개교에서 화상교육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은 전남지역의 초·중·고교와 호주의 초·중·고교가 1대 1 결연을 맺은 뒤 화상으로 연결해 각 학교의 수업을 참관하는 방식이다.

초등학교는 문화교류, 중·고교는 과학 등 주제

를 정해 공동 수업을 진행한다.

도 교육청은 화상교류 수업 학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호주 글로벌 학생 캠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화상교류 수업 사례를 토대로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2025년에는 3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여선 전남도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전남지역 학생들이 화상을 통해 호주의 교육을 접할 수 있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으며 국제적 감각이 키워지는 효과가 있다”며 “전남지역 학교들이 호주를 비롯한 다른 나라 등과 화상수업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여대-목포해양대-라운힐,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 협약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는 “최근 학교 어등관 항공서비스학과 회의실에서 광주여대(책임교수 인옥남), 라운힐(대표이사 김형진), 목포해양대(책임교수 노창균)가 ‘스마트선박 크루즈 및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의 미래형 운송기기육성사업단 전환경스마트 선박 운용 및 승선 전문인력 양성과제에서 협력한다. 또 네트워킹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공유를 통해 인재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라운힐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스마트선박 전문인력 인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정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